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년 3월 30일(목) 14:00
배포일시	2023년 3월 30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50, press@kdi.re.kr)
담당자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겸 미래전략연구센터장 (044-550-4011, yskoh@kdi.re.kr)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혁, 그리고 재도약'

- 일 시: 3월 30일(목) 13:30 ~ 17:45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F)

- KDI는 3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혁, 그리고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국의 개혁과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다"라고 강조하며 "KDI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 등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그리고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인재 양성과 효율적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대한민국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은 어렵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당부함.
- [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에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미·중 전략경쟁, 디지털화 진전 및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2050년의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지만,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
 -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여건을 개선하며,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세션 2: 저탄소 경제]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신산업 육성, 전환부문 우선 감축, 가격신호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 재편 지원, 위기 산업 종사자와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저장기술과 CCUS¹⁾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없는 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여건과 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기화와 더불어 전력산업 내 장단기 계약시장의 확장, 현물시장 고도화, 전력요금 정상화, 해외자원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
- [세션 3: 교육 및 노동]에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 수업을 공교육에 적용하면 교육의 질 향상, 교육비용 절감, 교육 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습 수요자와 공급자가 겪을 수 있는 관련 장애요인을 미리 탐색,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교육 구조개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대학알리미'의 유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대학 및 학과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국립대학에 대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
-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13~21년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과 임금 변화가 관찰됐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

1) Carbon Capture and Storage: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

- 이러한 노동수요 변화 속에서 개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포괄적 확대,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 강화,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노사 모두의)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 첨부 3. 연사 프로필
- ❖ 별첨 1. 컨퍼런스 개최식 현장 사진(30일 행사 당일, 14시 배포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3:45	<p>개회식</p> <p>개 회 사 조동철 KDI 원장</p> <p>축 사 한덕수 국무총리</p> <p>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p>
13:45~14:50	<p>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p> <p>발 표 1. 대외경제 여건의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p> <p>발 표 2.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p> <p>토 론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p>
14:50~15:00	<p>휴 식</p>
15:00~16:05	<p>세션 2. 저탄소 경제</p> <p>발 표 1.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p> <p>발 표 2.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p> <p>토 론 조홍중 단국대학교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p>
16:05~16:20	<p>휴 식</p>
16:20~17:45	<p>세션 3. 교육 및 노동</p> <p>발 표 1.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과 과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p> <p>발 표 2.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p> <p>발 표 3. 디지털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토 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p>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

발표 1. 대외경제 여건의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디지털화 진전 및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위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실행한 긴축 통화 정책은 올해 세계 경제에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는 가운데,
 - 미·중 전략경쟁으로 주요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전략 품목·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실행
 - 빅테크를 중심으로한 디지털화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대안적 지급·결제 수단을 창출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민하는 상황
 - 한편, 기후 관련 공시기준 강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논의는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점증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급망 재편 방안을 도출할 필요
 - 아울러,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산업 정책적 지원, 디지털 전환 및 기후정책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산업전환 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

[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

발표 2.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한 것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
 - 노동공급 증가세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하락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하여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함.
 -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전망

-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

[세션 2] 저탄소 경제

발표 1.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나,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자연환경,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는 제약이 존재
 - 일조량의 변동성이 크며, 풍속이 다소 느린 계절성을 띠는 한편,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결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한계
 -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28%를 상회하고, 특히 난감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가능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신산업 육성, 전환 부문 우선 감축, 가격신호 강화 정책이 필요
 -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조달 지원, 기술개발 지원, 친환경 단지 조성뿐 아니라 적절한 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전환, 비교역재 등 경제 충격이 비교적 적은 부문부터 감축하고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강화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양산업 재편을 지원하고 위기 산업 종사자와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계획할 필요
 - 저탄소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사양산업이 발생하므로, 기업과 종사자, 나아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환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함.
 - 저탄소 산업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변하면서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므로 선제적 대비가 필요

[세션 2] 저탄소 경제

발표 2.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기후재앙을 방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전기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를 전기 또는 수소를 사용하는 설비로 대체하고, 저탄소 에너지원과 수전해, 탄소포집이용저장(CCUS²⁾) 기술 등을 활용

-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는 주요 대안에 대해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
 -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중이 70%에 달하는 기존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상 변동성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계통비용의 급증을 유발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촉진

- 전력산업 내 장단기 계약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현물시장을 고도화하고 요금을 정상화하며 해외자원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전력시장의 시간적·공간적 세분화를 모색하면서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계통 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 용량가격과 탄소비용을 반영한 시장가격 확립
 - 전력산업 가치사슬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신금속과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해외자원 확보

2) Carbon Capture and Storage: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

[세션 3] 교육 및 노동

발표 1.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과 과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 2010년대 이후 최상위 수준의 초·중등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지속 하락하는 등 교육 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황
 - 최근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 교육 투자비는 OECD 평균에 비해 1.4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상위학력 비율은 감소하는 등 학업 수준의 전반적 하향평준화 현상 감지

- 이는 평준화 획일화에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실 수업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
 -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던 기존 수업방식을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전환
 -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공교육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해결 과제들을 조망
 - 학습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 활용 성과와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세션 3] 교육 및 노동

발표 2.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 지금까지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서 대학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한계를 노정
 - 대학들은 상대적 강점 분야에 특화하기보다 학과 수를 늘리면서 개별 학과 규모는 축소하는 등 특성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추진
 - 신입생 충원율, 입학 경쟁률, 취업률 등에 투영된 수요자들의 선호가 정원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거나 대학의 자율 및 창의를 저해할 우려도 존재
-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온 것은 대학교육의 공급측 및 수요측 문제에 기인
 - 공급측 문제: 교수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대학 지배구조의 취약성, 국립대학의 연성예산제약³⁾
 - 수요측 문제: 적절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행태
- 향후 대학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⁴⁾'를 유도하여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할 필요
 - '대학알리미'의 유용성을 개선하여 수요자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편, 특히 졸업생 연봉 등 취업의 질에 관한 정보, 대학 및 학과별 취업률 전국 순위를 제시

3)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세출결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현상

4)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 물리적 이동 등의 자발적인 참여나 철수를 통해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

[세션 3] 교육 및 노동

발표 3. 디지털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디지털 전환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한 우려 존재
 - 인간 고유의 업무로 여겨졌던 부분까지 자동화하는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직 및 구직에 대한 불안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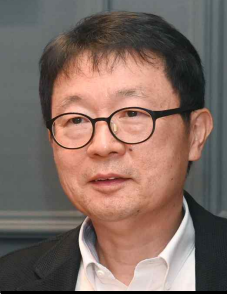
- 지난 2013~2021년 동안 디지털 전환은 지역 수준 총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직업군별 고용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 특히 평균 임금에 뚜렷한 감소가 나타나는 등 직무 가치의 변화를 시사
 - 지역별 과거 산업구성과 디지털 전환 추이로부터 예측되는 지역 내 디지털 전환 영향도가 높아질 때, 총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평균 임금은 뚜렷하게 감소
 -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종류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 증가와 이러한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개인이 경험하는 충격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 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및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등 내적 유연성 기제를 확산하고,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

❖ 첨부 3. 연사 프로필

세션 1. 대외환경 및 거시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



- 現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獨 문헌대학교 CESifo 연구소 연구위원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現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장

발제 1. 대외경제 여건의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現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現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 前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발제 2.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 現 KDI 경제전망실장
- 現 KDI 선임연구위원
- 前 美 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 방문학자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現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 現 한국국제경제학회 운영이사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자문위원
- 前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조교수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前 자본시장연구원장
- 前 KDI 연구위원

세션 2. 저탄소 경제

강승진 전기위원회 前 위원장 (사회)



- 現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
- 前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 前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장
- 前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 前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발제 1.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 現 KDI 규제연구센터장
- 現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現 KDI 연구위원
- 前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 前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경제학 강사
- 前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

발제 2.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 前 KDI 규제연구센터소장
- 前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 前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토론

조홍중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 現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장
- 現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 現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 現 장기천연가스 수급 자문위원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現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現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위원
- 現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前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세션 3. 교육 및 노동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사회)



-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前 한국노동경제학회장
- 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민간간사
- 前 KDI 연구위원
- 前 美 라이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1.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과 과제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 現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
- 現 KDI 연구위원
- 前 美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 방문교수
- 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발제 2.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 現 KDI 연구부원장
- 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연구부장 등
- 前 고용노동부 차관
- 前 국무조정실 제2차장
- 前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연구본부장 등

발제 3. 디지털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연구위원
- 現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 現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포럼 위원
-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 위원
- 前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TF 위원

토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現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 現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육혁신센터장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
- 前 KDI 연구위원 및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노동경제학회장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前 한국노동연구원장
- 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